

나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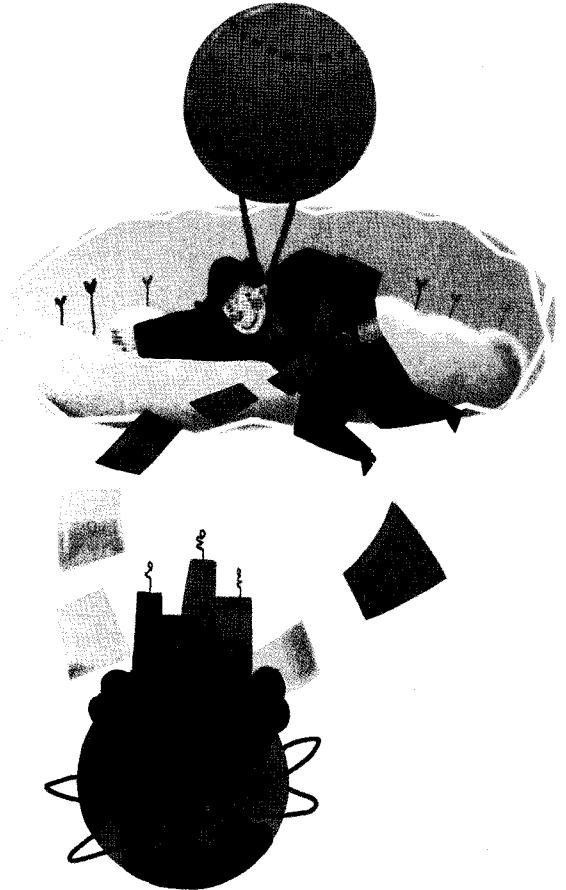
온몸으로 체득한 표준채택 노하우

이현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동통신 PD, TTA PG 701/709 의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앞선 아이디어로 포장되고 좋은 특허로 뒷받침 되어도 표준에 반영 되지 못한 기술은 바람 빠진 풍선만도 못한 신세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 굴지의 회사들이 표준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글 같은 국제표준무대에서 표준채택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치밀한 전술로 접근하면 의외로 표준확보는 가까이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표준추진작업은 사냥이자 낚시질이다.

초보자들이 표준무대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단기에 독식하려는 것이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특허를 작성하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내용을 담은 폴셋의 기고문을 써서 의기양양하게 제출하고 당당하게 발표한다. 그러나 표준회의장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십중팔구 무관심 아니면 무자비한 공격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표준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준비는 완벽히 해 놓되 밖으로는 조금만 공개하고 이를 미끼 삼아서 다른 회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즉 내가 처놓은 덫에 여럿이 빠져 들도록 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방법인 것이다.



둘째, 표준 기술발굴작업은 공학이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만 깊게 천착할 게 아니고 주변에 기술의 그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 위 기술(A)을 이어 붙이거나(Aa) 쪼개거나(A-a)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aA) 뒤집거나 해서 가능한 모든 파생 기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에서 아주 요긴한 순방향 전송관련 아이디어 하나를 발견했다면, 역방향에서는 어떻게 동작할 지, 다이버시티 전송은 어떻게 구현할 지, 핸드오버는 어떻게 대응할 지, 전력제어는 어떻게 할 지 등의 파생 기술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셋째, 표준전쟁은 격투기 스포츠다.

표준회의에서는 각 나라의 또는 각 회사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만큼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자존심 강한 전문가집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이 최선이다. 모든 발표자의 모든 기고에 대해서 꼬박꼬박 질문 또는 공격을 하는 행태를 보이면, 다들 은연 중에 꼬리를 내리고 이 공격자를 존중해 주기 시작한다. 일단 한번 까다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으면 다음 회의부터는 발표자가 미리 찾아와서 사전 검토를 부탁받는 등 우월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발표할 경우에도 예리한 공격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이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의장이 발언권을 부여하는 유럽식 표준회의에서는 의장 눈에 잘 띄는 앞줄 가운데에 자리잡는 게 중요하고, 경쟁적으로 발언하는 미국식 회의에선 공용마이크 스탠드 옆에 자리잡는 등의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준협상은 외교이다.

표준확보는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치열한 작업이므로 모두가 필사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동원해서 싸우기 마련인데, 논쟁이 과열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흥분되기 쉽다. 특히 동양인들의 취약 점이기도 한데,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외교관이 본국의 선전포고를 주재국에 차분하게 전달하듯이 표준 전문가는 항상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하나 염두에 둘 점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회의시간에는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회의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허물없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 일정기간 서로 협력할 때가 있지

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서 다 동조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는 왜 동의할 수 없는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We should agree why we can not agree'라고 하는 단계가 지속적인 신뢰관계 유지에 매우 필수적이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표준에 따라 구현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히 선진국들과 표준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나서서 세계표준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표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략과 전술이 함께하는 종합예술을 펼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방침들은 여러 가지 표준추진 기법 중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준채택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TTA

